

한우산업의 주변상황과 전망



이수현

축산기술연구소 과장

1. 머리말

새해를 맞았다. 아침에 하루계 획이 있듯이 연초엔 한해계획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작금의 주변 상황은 한 해는커녕 당장의 일조차 어떻게 꾸려 가야 할지 막막한 지경에 이른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상황 여건을 직시하는 냉철함, 힘써 해야 할 일을 가늠해 내는 현명함, 그리고 할 일을 일관되게 밀고 나갈 끈질김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이에 필자가 보는 상황여건과 한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을 간추려 봄으로서 당면한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데 다소나마 이바지하고자 한다.

2. 한우산업의 주변상황

한우경영은 양축가가 생산자 입장에서 소비자인 국민에게 한우를 길러 팔아 경제력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한우산업이라 함은 한우경영뿐만 아니라 한우경영에 필요한 것들(종축, 시설·농기계, 사료, 약품, 수의진료, 인공수정, 노동력 등)을 생산·조달하는 『경영지원업종』, 도축·가공, 쇠고기무역, 쇠고기 도·소매, 요식 등 『쇠고기의 유통·소비업종』, 그리고 이들 업종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업종 등을 모두 포함하는 쇠고기 산업으로서의 넓은 개념이다.

여기서는 한우산업 가운데서 한우경영으로 범위를 좁혀 주변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한우경영의

주변 상황은 한우산업을 구성하는 여러 요인들의 맞물림 작용으로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은 쇠고기 수입과 사료시세일 것이다.

가. 쇠고기 수입관련 상황

'93년부터 시작되어 2001년에 이르는 쇠고기 수입개방 일정 중 올해는 6년차의 해로서 수입쿼타량은 18만 7천톤(500kg짜리 소 100만두 수준으로 한우 260만두를 기르고 있어야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다. 그간의 쿼타량은 '94년에 10만 6천톤, '95년에 12만 3천톤, '96년에 14만 7천톤, '97년에 16만 7천톤 이었고, 수입된 양은 '94년에 12만톤(쿼타량 대비

120%), '95년에 14만 8천톤 (120%), '96년에 14만 9천톤 (101%) 이었다.

한편 국내산 쇠고기 공급은 '94년에 14만 7천톤, '95년에 15만 5천톤, '96년에 17만 4천톤, '97년(9월까지) 17만 3천톤이며, 이와 같이 국내산 쇠고기 공급량이 늘어남에 따라 자급율도 95년에 51% 이던 것이 '96년에 54%, '97년(9월까지) 63%로 늘어났다.

그러나 쇠고기 수입량과 국내산 공급량이 늘어남에 따라 수급원리상 한우가격이 하락하고, 더불어 '88년 이후 증가세에 있던 2세 이상의 암소 마리 수도 '97년 하반기에 들어서는 감소세로 반전되고 있다(88 : 66만 9천두 → '96 : 120만 9천두 → '97.9 : 114만 6천두). 암소마리수 감소는 사육의욕의 감퇴를 뜻하는 것이고, 사육의욕의 감퇴는 한우산업의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한우산업을 전망함에 있어 우선적인 고려사항은 앞으로의 소값 수준이다. 이제까지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터이지만 소값은 쇠고기 수입량 및 가격과 밀접한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통관기준으로 본 쇠고기(지육과 정육형태)의 수입양과 금액은 '94년에 14만 3,502톤, 4억 3,310만불(톤당 3,018불), '95년에 16만 9,389톤, 5억 4,278만불(톤당 3,204불), '96년에 16만 4,303톤, 5억 286만불(톤당 3,061불), '97년(10월까지) 13만 7,589톤, 3억

8,295만불(톤당 2,783불)이었다(농수산물 유통공사 D/B 자료).

'96년의 톤당 수입통관가격 3,061불은 당시의 원화가치로 260만원(환율 850원 수준)인데, 이를 '97년 말경의 원화가치(환율 1,500원 수준)로 본다면 459만원이 되어 국내가격으로는 무려 76%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앞으로 외환사정이 개선되고 환율이 적정수준에서 안정되더라도 '96년 보다는 상당수준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수입쇠고기 가격은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고, 그만큼 한우산업의 발전 잠재력은 확보되는 것이라 하겠다.

물론 환율 상승에 따라 사료값도 올라가는 무시 못할 면도 있으나 사료가격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수입쇠고기 값이 높아지는 비율보다는 낮을 것이며(환율 10% 상승시 수입쇠고기 가격 10% 상승, 사료 가격 7.4% 상승), 다른 한편으로는 그간의 낮았던 사료값 때문에 경제성을 갖지 못했던 부존 사료자원도 이용될 소지가 늘어남으로서 한우산업의 발전역력은 그만큼 추가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나. 사료시세 관련 상황

사료값에서 차지하는 원재료비 비율이 77% 수준이고, 원재료의 수입 의존도가 96% 수준임을 감안하여 환율(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 비율) 1,400원일 때의 배합사료 kg당 적정가격을 번식우용이 350원, 비육우용 370원 수준으로 본 견해가 있다. 이 사료값을 축협

의 번식우 및 비육우 생산비 조사 보고('96)내용에 적용하였을 때 암소 두당 1년간 사육비는 114만 6천원에서 132만 1천원으로 17만 5천원이 늘어나며, 암소 사육비가 늘어남에 따라 송아지 생산비도 139만원에서 160만원으로 21만원이 늘어난다. 그리고 비육우 생체 kg당 생산비는 6,100원 수준에서 500원 정도 늘어남으로서 500kg짜리 마리당으로는 305만원에서 330만원으로 25만원 정도가 추가된다.

여기서 일컫는 생산비는 지출되는 현금비용, 빌려쓴 돈의 이자, 축사등 시설 및 대농기구의 상각비, 자가노동 보수, 투자자금에 대한이자, 토지이용비용 등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으로서 생산비가 보장될 경우 번식·비육일관경영에서의 소득은 비육우(500kg 기준) 두당으로 120만원 정도이고, 소요기간은 대체로 2년정도이므로 연간소득은 60만원 수준이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놓고 볼 때 500kg짜리 비육우의 가격이 과연 330만원 이상으로 형성,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경우 생산비를 어느 정도까지 절감해 내려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 가능성은 모색하여 도전하는 사람에게 한우산업의 전망이 밝게 보일 터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비관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한우산업의 발전과제

한우산업이 존립하기 위하여는

**80년대 중반 소값이 하락하였을 때
경영손실을 줄이고자 기르던 한우를 내다
팔기에 바빴고, 80년대 말에는 UR이 알려지면서
또 한 번 그리했다. 그리고 수입 완전개방을 얼마
앞둔 시점에서 설상가상으로 IMF 긴축경제시대를
맞으며 그와 같은 현상이 일부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전망되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는
경영손실의 최소화 수단을 찾는 소극적
경영자세보다는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적극적인 경영자세가 절실하게
요청되고 필요한 것이다.**

생산비와 적정이윤을 취할 수 있는 수준에서 소값이 형성되고 장기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UR협상에서 WTO체제로, 그리고 또 IMF 경제시대를 맞으며 우리나라의 쇠고기 시장도 이제는 한우고기라 해서 받을 프리미엄이 별로 없게 되어가지만 육질의 고급화, 상품성의 다양화, 안정성의 특장화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서 시장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여건은 그런대로 마련되어가는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다. 또한 생산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 연구도 많이 하고 있다. 이렇듯 가격 수준의 제고와 생산비 절감 기술개발·활용에 진력한다면 한우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갈 것이다.

가. 한우개량의 적극 추진

전래의 일소이던 한우가 일소로부터의 역할에서 벗어나고부터 고기생산성과 육질이 향상될 수 있는

전기를 맞은데다가 그간의 개량 노력으로 한우가 갖고 있는 육우로서의 잠재적 우수성이 내비쳐지고 있다.

'97년 9월에 등급 판정된 한우 8만 8,472두의 중심 등급은 B-3로서 전체두수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육kg당 가격은 8,207원이었다. 한편 최고등급인 A-1은 0.5%이고, 가격은 10,717원이었는데 이는 B-3에 비해 kg당으로는 2,510원이, 500kg 비육우 마리당으로는 72만 7,900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이와 같이 잘 개량된 한우는 보통 한우에 비해 훨씬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르고 있는 한우의 혈통을 등록하고 그 유전적 뒤됨이에 따라 개량을 촉진할 수 있는 보증종모우를 추천받아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산된 소 168두가 제3회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97. 10. 28 중축개량협회 주최)에 출품됐고, 그

평가결과가 육량A등급(A-1, A-2, A-3)이 22두로서 출품두수의 13%를 육질1등급(A-1, B-1, C-1)이 109두로서 65%를 각각 나타냄으로서 개량추진의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실증한 바 있다.

**나. 유전자원의 특징별 활용
기반 구축**

그간의 한우개량은 황갈색 단일유형으로 획일화하여 추진해온 경향이 있어 한우의 특징 변이폭이 매우 좁아졌을 수가 있다. 따라서 황갈색 한우에 대하여 발달된 유전 육종기법과 첨단유전공학기법을 활용하여 번식성, 육량성, 육질성 등의 경제적 형질별로 차별화, 계통화된 암소핵군을 확보함과 아울러 흑소, 만선소, 칙소 등 특징있는 한우에 대하여도 유전적 특징을 구명하고, 일정두수를 조기에 확보, 능력을 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하여 여러유형의 쇠고기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한우고기의 상품성 다양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 유통형태의 신세대화

쇠고기는 길러진 품질 그대로, 그리고 만족할 만한 형태로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통시설이 보다 빠르게 체계화되고 현대화되어야 하며, 아울러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이 원활하게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도 확충되어야 한다. 이것이 소비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 속의 최대한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

이 되며, 한우산업 발전의 기틀을 굳건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오랜 진통 끝에 개정공포된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시행으로 이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가 거양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 부존사료자원의 이용 확대

외래종 닭도 우리의 산야에 풀어 놓아 먹이면 재래닭 맛이 난다하여 그 값을 올려 받는 것이 현실이다. 역설적으로 우리 고유의 한우라 하여 외래 사료에만 의존할 때 그 맛이 외국소 맛으로 옮겨가지 않으리란 보장은 있는 건지 . . .

각설하고, 우리에게는 상대적으로 값싼 배합사료에 밀려 보다 경제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존사료자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 벼짚, 보리짚, 콩깍지, 옥수수대, 채소부산물, 고무마줄기, 울무짚등 「농산부산물」 짚겨, 보리겨, 맥주박, 주정박, 감귤박, 밀기울, 대두박, 전분박 등 「농산가공부산물」 등이 그것으로 이들을 건물량으로 환산하면 연간 생산량은 725만톤이고, 가소화양분 총량으로는 329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존사료자원을 잘만 활용하면 배합사료량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우품질의 특화를 통한 상품성의 다양화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므로 부존 사료자원이야 말로 1석2조의 잠재적 효과를 지닌 한우산업 발전의 활용소재인 것이다.

마. 전산정보화 기반확충 및 활용능력 제고

지금은 후기산업 사회를 지나 정보화 사회에 접어들어 있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초고속 정보망을 깔아 나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정보들이 눈부시게 유통·활용될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한우산업도 같이 감으로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소 전산화 등록사업도 이와 관련된 것인데, 이 사업은 가격 안정제도 운영 수단으로서, 그리고 등급판정제도 운영과 연계한 농가한우의 개량도 평가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한우산업의 전산화와 관련된 사업으로 가축개량 관련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서비스 시스템(GBNET : Genetic Evaluation Network)을 축산기술연구소가 축협중앙회(가축개량사업본부 한우개량부·젓소개량부, 축산물등급판정소), 종축개량협회, 양돈협회(능력검정소), 양계협회(능력검정소), 도단위 가축개량기관(도종축장, 축산기술연구소·센터, 축산진흥원 등) 등과 연계하여 구축중에 있다.

이러한 사업들이 머지않아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을 때 한우 경영능가가 필요로 하는 온갖 정보가 문밖에까지 와서 쓰이기를 기다리는 상황이 마련될 것이므로 농가단

위에서도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4. 맺는 말

80년대 중반 소값이 하락하였을 때 경영손실을 줄이고자 기르던 한우를 내다 팔기에 바빴고, 80년대 말에는 UR이 알려지면서 또 한 번 그리했다. 그리고 수입 완전개방을 얼마 앞둔 시점에서 설상가상으로 IMF 긴축경제시대를 맞으며 그와 같은 현상이 일부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닥친 어려움을 극복, 발전의 계기로 삼아온 사람들은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음을 우리는 본다. 깊이 흐르는 물은 요란스럽지 않고 묵묵히 바다로 흐르는 것이다.

정부의 가격안정제도 시행이 늦어져서 한우경영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불만 반 하소연 만의 이야기를 듣는다. 앞으로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는 경영손실의 최소화 수단을 찾는 소극적 경영자세보다는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적극적인 경영자세가 절실하게 요청되고 필요한 것이다.

닥치는 어려움에 대해 창조적인 해법을 마련함으로써 그 어려움이 오히려 한우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의 역량을 모을 때이다. ㉞

〈필자연락처 : 0331-290-1561〉